

11. 던져진 존재로 살 것인가? 보냄 받은 존재로 살 것인가? / 엄태호 목사

본문	사도행전 28:23-31, 디모데후서 4:2	주제/사건	복음을 전해야 하나요? 전하지 말아야 하나요?
문제제기	<p>1. 요즘 시대에 전도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삶으로 전도하면 되는 것 아닌가?</p> <p>2.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p>		
설교	<p>1.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 받은 존재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이 이끄는 삶,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 노인과 바다(헤밍웨이) : 헛된 목표를 위해 애쓰고 노력해 봐야 헛수고다.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다. -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다. - 사도행전 8장에서 팁박 때문에 흘어진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보내신 것이다. <p>2. 담대히(거침 없이) 복음을 전하더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도행전의 시작 :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한 번의 설교로 5천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기적의 사건, 거창하게 시작한다. - 사도행전의 마지막 : 가택연금 당한 사도 바울, 그러나 많은 제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p>3.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행 28: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의 설교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 씨 뿌리는 비유(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 -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므로 입을 열고 혈떡였나이다”(시편 119:131) - 이 말씀을 먹으라(에스겔 3:1-3, 요한계시록 22:10-15) <p>4.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 종말론과 사명(복음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디모데후서 4:2) - <p>5. 김은영 집사(러시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차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복음 전도할 장소 정하기) - 수많은 제약 속에서 컨택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기 - 요한복음 3:16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기 		

긴박함이 없었더라면. . .

사도행전 28장 30-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침없이 가르치더라

메시지 성경

이 낸 동안 바울은 셋집에서 살았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 맞아들였다.

바울은 긴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의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디모데후서 4:2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 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C. S. 루이스의 책 [Mere Christianity]에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를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소망을 붙드는데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기다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망은 기다림과의 지루한 싸움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긴박함이 없었더라면’이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30절과 31절에서 두 가지 사도바울의 행동에 주목해 보았는데 ‘기다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다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의 기다림과 한가하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에서의 행동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한가하다’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살피고 충분히 고려할 만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도 가려서 만나고, 신분을 확인하고, 호불호에 따라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한가함’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는 말은,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에 기름을 부어 죽이기 일보직전이라는 말이죠. 사도바울이 바라보는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긴박하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과 디모데 후서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중 최후의 것으로 두 번째 로마에 갇혀있는 동안에 기록한 것이다. 주후 67년경이었을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에서 일단 석방되어 그 후 서반아에 갔다가 다시 동방으로 와서 고린도와 밀레도를 거쳐(딤후4:20), 드로아까지 갔다가(딤후4:13) 드로아에서 갑자기 체포되어 다시 로마로 호송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시기적으로 보면, 네로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64년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석방되었던 바울이 로마에 있었던 대 화재로 인해 다시 투옥되었고, 그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2년 가까이 허름한 집에서 로마 군인들의 감시아래 지내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보게 된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시선으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시기에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과, 그 편지를 쓰고 있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누가의 기록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흥미로운 것은 그런 자신의 자기 고백이 있은 후 디모데 후서 4장 7-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밀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의 마지막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남겨진 시간이 아까웠던 것이죠.

죽음 앞에 선 사람만큼 담대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꾸 오래 살려고 하니 고려할 것들이 많지, 오래 살려는 마음 만 없다면 얼마나 거침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담대함과 거침없음은 둘이 짹을 이루는 단어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분과 교제하다가 그분이 최근에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 영화를 보고 바울이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 깊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람은 자기가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 것이나 100%가 아닌 것에 생명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복음은 진짜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팝박을 받고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갈 필요 없이, 로마에 갇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2년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성실하게 듣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의 새 물결 속에서 바울은 이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예수님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은 바로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기간 중에 쓴 네 개의 편지 중 하나인 빌립보서, 즉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주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빌립보서에서 그것을 암시해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빌 1:13, 새)

로마 군대의 핵심이며 황제도 그 안에서 나오던 친위대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밖의 모든 사람, 즉 수많은 로마 귀족들 심지어 왕족들 집안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빌 4:22, 새)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황제는 네로인데, 심지어 네로의 친인척 가운데 몇몇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겠습니다.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을 막을 수는 있지만 복음은 막을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방해가 있습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거부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계속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주십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땅 끝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세상의 가장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방 세계의 중심이며 세상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30절에 “온 이태(2년)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영어성경 NRSV나 ESV에 보면 “at his own expense”(자신의 돈으로)라고 했고, NIV에는 “in his own rented house”(자신이 렌트한 집에서)라고 풀어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 당국의 감옥 밖에 있는 가택에 연금된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이 꽉꽉 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죄가 거의 없거나 가벼운 사람들은 밖에 가택연금을 했습니다. 거기서 정확히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일정 소득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곳에서 계속 선교헌금을 보내준 겁니다. 그런 선교헌금을 통해 집세를 내고 손님들을 대접할 비용을 스스로 충당하고 지불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스톱됐습니다.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즐기던 영화관에 갈 수도 없고, 심지어 교회에 갈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있습니다. 회사들도 당분간 못 오게 하고, 출장도 못 가게 합니다. 갔다 와도 2주 동안 격리됩니다. 한국은 점점 더 그렇습니다. 한국에 가시면 가셔서 당분간은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나가는 것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산 것이, 바이러스 하나가 탁 들어오니까 별 의미가 없어졌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하나 들어와 다 스톱되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저 조금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아닌가?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저 단지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편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퇴 후에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하고 싶어서입니까? 지금은 여행도 못 갑니다. 갔다 와도 큰일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돈 벌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정말로 말년에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노년에 즐겁고 편하게 지내다가 가는 것이 정말로 행복할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삶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일까?

바울은 당시 세상의 중심이면서도 당시 유대인들이 땅 끝으로 여기던 로마까지 가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삶을 마쳤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13년 넘게 100주년 기념교회를 지키고 은퇴하던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바울의 마음을 설교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은퇴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처음 교회를 담임해 목회하던 순간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은퇴’의 순간도 ‘던져진 것이 아니라 보내 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고 거창으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역시 사명이라고 말이죠.

은퇴를 준비하면서 서울과 거창을 오가며 집을 짓는 과정을 통해 가장 많이 떠오르고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자신을 믿음의 길로 인도한 ‘윤애주 사모’ 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근래 제 눈^길이 아내의 손등에서 멎^{쳤다}. 서울에서 먼^길을 오가면서 그 마을에 집을 짓고 이사하느라 수고한 아내의 손이 많이 상해 있었다. 그 손을 제가 측은한 마음으로 쓰다듬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손과^별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더^많이 사용하고 가야지’.

그 말에 제 마음이 찡^{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과^별을 주신 것은 예쁘기 기다림^{기만} 하라고 하심^이 아니라, 흉이나^자로 사그라들기 전에 누군가를 위해 더^많이 사용하기 하시기 위함^{이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30-31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낸 동안 바울은 셋집에서 살았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 맞아들였다.

바울은 긴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의 집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긴박함 가운데서 . . .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그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언은 가장 절박하고 가장 진실하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카콜라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명 선언문’ 같은 것인데,

‘우리는 온 인류의 혈관에 코카콜라를 흐르게 한다!’입니다.

혹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코카콜라 회사를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운 사람이 로버트 우드러프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의 비결을 물어보는 시자들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 몸의 혈과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정말 그 사람 몸을 송곳으로 따르면 코카콜라가 나올까요? 우리는 그 의미가 코카콜라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누군가 우리의 몸을 송곳으로 찌르면,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적어도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엄^두지 못^하 엄^두지 항상 힘^쓰라 법사에 오래^침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러시아에서 의료기기 사업을 하다가 의사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러시아에서 의대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의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김은영 집사님입니다.

일본에서 BTD를 할 때면, 팀 멤버 봉사를 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에서부터 날아온 사람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로 인해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이 분이 의사가 되려는 이유는 한 가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분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1) 2019년 1월 14일

아침기차에 올랐다.

옆에 앉으신 하얀 콧수염을 자랑하시듯 날카로운 눈매의 아저씨.

그는 핸드폰으로 기사를 읽고 계셨다. 어떻게 말 걸어야 확 무시를 안 당할까 고민하다보니 결국 5분 남았다.

"이제 마지막 정거장인가요 곤? "이라고 다짜고짜 물으니 생각보다 친절히 그렇다고 하셨다.

"휴 다행이네요. 아직 시간 있으니 제가 드라는 말씀을 잘들어보세요"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서두르지 않고 또박 또박 암송해드렸다.

갑자기 환하게 웃으시며 맞다고 맞다고 하셨다.

괜히 긴 시간을 고민했다고 생각하니

감사하다고 하고 기차가 종착역에 다가올 때 멋쩍게 재빨리 내리고 곧장 전철역을 향해 뛰었다. 감사합니다. 주님!

2) 2019년 1월 11일

기차전도 방식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차 옆에 앉은 통통한 30대 모피 입은 여인과 날씨로 얘기 나누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요한복음3장16절 2번 반복하며 암송하며 잘 들어보세요 하니,

제 입모양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잘했어요 잘했어요" 하며 웃어주었습니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나중에 나를 도망갈 것 같아

필요한 때에 기억나기를,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길 구하고 또 만나도 편안하게 만나도록 친구가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사니까요..

3) 김은영 집사님 의사 가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16을 전하기 위해서 늘 기도로 준비하는 김은영 집사님, 러시아에서는 이방 사람이면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출근하는 기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컨택”을 위해서 늘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요한복음 3:16을 읽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지만 뿐만 복음의 씨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 아간다. 의사 가운에 이름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라는 문구를 적어놓은 것도 그것이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길 바라는 집사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만일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매일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고, 컨택을 준비하고, 요한복음 3:16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 복음을 읽고, 누군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オス ジネス(Os Guinness)라는 분이 오래 전 쓴 책 중에 <소명(The Cal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직업이 끝나는 것과 소명이 끝나는 것을 혼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직업에서는 은퇴할 수 있지만, 즉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다가 은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서는 은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정신입니다.

그리고 기네스는 윌리엄 드레이크 경의 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성공회 기도문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일을 계속하여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다.” 성실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2. 교회 다니는 사람 끌불건 베스트 3



요즘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꼴불견 베스트 Three” 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 번 보시오.(차트를 준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꼴불견 베스트 3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옳다고 떡살 잡고 싸울 때.

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뉘어져서 떡살 잡고 싸우는데 대부분은 돈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꼴불견 베스트 2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착한 척하면서 직장에서는 성실하지 못하고 악하게 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꼴불견 베스트1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들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고 너희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갈거라고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꼴불견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배려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창 피곤해서 지하철에서 쉬면서 가려고 했는데 자꾸 말을 거는 겁니다. 어디 사냐? 교회는 다니냐? 성경은 들어봤느냐?

요즘 누가 그런다고 교회를 다닙니까? 안 그대로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데... 심지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교회 배경으로 뭘 찍으면 시청률이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자기들이나 제대로 살라고 하세요.

설교 자료

2.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 받은 존재이다.”

- 1) 목적이 이끄는 삶,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 2) 노인과 바다(헤밍웨이) : 헛된 목표를 위해 애쓰고 노력해 봐야 헛수고다.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다.

- 3)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다.
- 4) 사도행전 8장에서 펁박 때문에 흩어진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보내신 것이다.

2. 담대히(거침 없이) 복음을 전하더라

- 1) 사도행전의 시작 :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한 번의 설교로 5천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기적의 사건, 거창하게 시작한다.
- 2) 사도행전의 마지막 : 가택연금 당한 사도 바울, 그러나 많은 제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3.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행 28:24)

- 최고의 설교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 씨 뿌리는 비유(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
-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므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시편 119:131)
- 이 말씀을 먹으라(에스겔 3:1-3, 요한계시록 22:10-15)

4.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 종말론과 사명(복음 전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디모데후서 4:2)
-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혹은 다른 방식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사도행전 28:30-31

- 30)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 31)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디모데후서 4:2

-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